

PA-32

전북지역에서 들깨 재배시 직파와 이식간 생육 및 수량

안승현¹, 박형호^{1*}, 김영진¹¹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

[서론]

들깨는 파종시기가 6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이모작 작부체계에 유리한 작물이다. 들깨를 이식재배할 경우 2모작 작부체계에 서 약 3주간의 작기 경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. 농기계의 발달로 콩의 경우 이식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도 성과를 내고 있다.

따라서 본 연구는 들깨 이식재배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및 방법]

- 시험재료: 다우들깨, 들샘들깨, 들향들깨, 백진들깨 및 소담들깨 등 종실용 들깨 품종
- 파종일: 2019년 6월 13일(직파), 이식일: 2019년 7월 3일(20일묘)
- 재식거리: 80cm/30cm × 30cm 흑색비닐 멀칭 두줄재배
- 시비량: $N_2 - P_2O_5 - K_2O = 4-3-2$ kg/10a
- 조사내용: 경장 등 생육조사,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등

[결과 및 고찰]

2019년 들깨 5품종을 직파 및 이식재배 시험한 결과 시험기간 중 고온으로 인해 평균적인 수량이 낮았다. 이식재배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품종으로 짝을 지어 생육정도를(직파: 이식)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, 개화기는(9월 4일: 9월 5일), 성숙기는(10월 8일: 10월 8일), 경장은(131cm: 136cm), 경태는(11.8mm: 12.8mm), 주경절수는(12개: 13개), 분지수는(16개: 13개), 화방군의 길이는(10.8cm: 10.3cm), 화방 수는(65개: 75개) 및 10a당 수량은(61kg: 67kg)로 이식재배가 직파재배에 비해 생육이 양호하였다. 두 가지 재배법간 차이를 짚은 처리 간 단측 t검정한 결과 분지수와 화방군장은 차이가 없었으며 개화기는 늦어지고 경장은 길어지며 경태는 굵어지며 주경절수 및 화방수가 많아져 수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정되었다.

이식에 따른 생육특성의 차이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생육특성별(이식-직파) 차이 간 상관 분석한 결과 ‘화방수 대 수량’은 $r = 0.861^+$ ($\alpha=10\%$) 화방수의 차이가 많을수록 수량이 많아지는 관계가 있었다.

종실용 들깨를 직파 및 20일간 육묘이식 재배한 실험결과 이식재배는 화방수의 증가로 수량이 증가하며 경장 및 경태가 커지게 되어 생육이 우세할 것으로 사료된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3839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(교신저자) E-mail, parkhh01@korea.kr Tel, 063-238-5372